

튼튼한 몸

맑은 정신은 은성의 힘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은성정밀인쇄(주)(대표이사 김 국).

인쇄업체로서는 보기 드물게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 회사의 큰 자랑거리는 산악회인 은우회이다. 매번 고객의 납기 기간을 맞추기에 바쁜 인쇄업체지만 한 달에 한번 은우회의 산행은 멈춤이 없다.

산행에서 소요되는 개인 비용은 없다. 하다 못해 소액의 국립공원 입장료 하나라도 전액 회사에서 지원된다. 산행만이 아니라 산악회와 관련된 각종 운영비용도 마찬가지이다. 김국 대표이사를 비롯해 50여명 전 임직원이 회원으로 가입된 산악회는 그야말로 회사 발전의 힘이다.

“힘들죠. 그래도 산에 오는 게 좋아요. 힘든 길을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우선 좋고요. 한번쯤 힘들게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나면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솟아나는 편이지요.”

입사 15년 경력의 고진석(은우회 회장)기장의 표현처럼 힘든 산행을 통해 얻어진 사원들간의 단합과 해 내교야 말겠다는 의지는 회사 업무에 그대로 녹아든다.

그런 탓에 업무 관계로 자주 찾지는 못하지만 환갑의 나이를 맞이한 감사장도 시산제 만큼은 빠지지 않고 참가한다.

김대표는 은우회의 산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인쇄관련 업체로서는 보기 드물게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단체 산행 때는 사원 가족도 참가하기도 하는데 산행에

매달 거르지 않고 산행 화합 다져



대한 가족들의 반응도 관찮은 편이다.

회사 일로 빼앗긴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산행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다. 산행이 없더라도 격주에 해당하는 토요일은 휴일이다. 바쁜 일이 있다면 사원들이 알아서 챙겨주고 회사는 특근 수당으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한다. 산악회를 통해 다져진 화합의 힘 때문인지 구제금융의 한파 속에서도 사원들은 회사를 걱정해 줬고, 그런 직원들에게 회사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했다.

1976년 설립된 은성정밀인쇄(주)는 30년 가까이 포장 및 특수 인쇄에 매달려온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01년 7월에는 ISO 9001을 획득하는 등 기술력 하나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업체이다. 미국에 지사를 두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활발한 성과를 보이는 등 디자인 분야의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01〉